



Global IT Korea 건설을 위한 IT 산업 해외진출 종합대책

○] 상철(李相哲)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월 5일 정통부 중회의실에서 민·관 합동으로 IT 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e-실크로드 구축과 Global IT Korea 건설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범국가적 IT 산업 수출무드 확산과 금년도 460억불 IT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개최된 IT 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에는 민간측 공동 위원장인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이영희 수출입은행행장, 김광호 한국S/W산업협회 회장, 김동욱 서울대학교 교수, 이용경 KT 사장 등 경제단체·금융계·학계·관련협회·업계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교환과 실질적인 해외진출 지원대책을 논의하였다.

□ 50대 세계 IT 일등상품 발굴 및 육성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매년 10개씩, 2006년까지 5년간 50개 세계 IT 일등 상품을 발굴하여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02년도에는 CDMA 등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10대 상품을 선정하여 해외 IT 전시회참가·시장개척단 파견·해외기업 초청연수 시 우선지원 및 각종 기술개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반기별로 10대 상품별로 우수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우수 수출 기업인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 2002년 10대 수출유망품목: ① CDMA 등 이동통신 ② Set-Top Box ③ TFT-LCD ④ 초고속인터넷 ⑤ DTV ⑥ SI ⑦ Home Networking ⑧ 게임S/W ⑨ 인터넷 PC방 ⑩ PDA

□ IT 신흥 전략국가에 적극 진출

동남아, 러시아, 동구, 중동 등 신흥 IT 시장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민관합동 시장 개척단 파견, IT 기술·정책 자문단 파견, 기술이전설명회 및 IT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및 수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 IT 장관회담 개최 : 한·중·일(9월), 모로코(9월), 시리아(9월), 베트남·미얀마(10월)
- ▲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및 IR 개최 : 러시아·동유럽(9월), 중앙아시아(9월), 중국(10월), 홍콩(12월) 동남아 국가(10월)
- ▲ IT 기술·정책자문단 파견 및 IT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 베트남(10월), 미얀마(11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IT 수출 마케팅전담회사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제 1단계로 중국 내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과 합작 또는 M&A 등을 통해 「한·중 IT 마케팅 전문회사」설립을 추진 (KT 및 한국 IT 중소벤처기업연합회 회원사)한다.

또 장비제조, 운영기술, 컨텐츠 분야의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와 관련 중소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 및 합작 등을 통해 해외에 공동 진출토록 유도하는 한편 관련 협회 산하에 5개의 「분야별 해외진출 협의회(SI(한국S/W산업협회), 이동통신(이동통신해외진출지원센터), 초고속인터넷(한국IT벤처기업연합회), N/W장비(한국N/W연구조합), 정보보호(정보보호산업협회))」를 구성하여 우리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제값 받기 수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I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환경 조성

◇ IT 산업 수출금융 및 보험지원 활성화

- ▲ S/W 산업협회 내에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IT 산업 수출금융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9월)하여 IT 수출 금융상 애로 및 전의사항 수렴, 수출금융 및 보험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 등으로 IT 업계와 수출금융기관과의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의 IT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200만 SDR(약 160만불) 미만의 소액시범차관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출입은행 담당 심사역의 현지 파견 등을 통한 지원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2003년 1월)할 예정이다.

▲ IT 산업 수출형태에 따라 EDCF 자금과 수출입은행 자금의 혼합신용(Mixed Credit), Structured Financing 및 구매자금융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다양한 Vendor Financing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9월)할 예정이다.

IT 기업에 대하여 전년도 수출 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는 포괄수출금융 융자비율을 확대(9월)하고 IT 기술 수출에 대하여 L/C방식 신용대출제도를 신규로 도입(11월)할 예정이다.

▲ 프로젝트성 IT 단기수출에 대하여 계약액 전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10월)하고 해외공사 보험을 SI 분야에도 적용(10월)하고 중소 S/W업체가 추진 중인 수출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 취급을 적극 확대(9월)하고 수출채권 매입외환 지원을 위하여 수출보험공사와 외국환 은행 간의 협력을 강화(9월)한다.

▲ 해외 공동진출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IT 컨소시엄 구성 업체에 대하여 수출보증보험료율을 15% 할인(10월)해 주고 S/W공제조합의 기금을 확대(2002년:340억, 2003년:380억)하여 S/W 업체들에 대한 수출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Korea Global IT Fund(1억불)」를 신규로 조성(9월)하고, 현재 운영중인 「한·중 IT 기술펀드」의 규모를 확대(1,000만불 2,000만불)하여 국내 유망 중소 IT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강화

하반기에 미국(9월, 10월), 프랑스(10월), 중국(11월), 영국(12월) 등 9개 전시회에 120 여개의 중소 IT 기업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프리 마케팅(Pre-Marketing) 등 지원방법을 다양화하고 현지에 상담 매뉴얼 제작·배포, 상담 기법·거래관행 및 현지화 전략 습득 등에 필요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S/W 해외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마케팅체험 교육을 실시(9월~11월, 50명)하고, SI 해외마케팅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아·태지역 진출방안을 교육(11월~12월, 60명)할 예정이다.

◇ 해외 IT 지원센터(iPark) 운영의 활성화

iPark을 동남아 등 신흥 유망시장에 2개소 추가 설치(2002. 12월)하고 iPark 입주기업의 제품을 세계 시장의 주요바이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금년 말 500개, 2005년까지 5,000개의 마켓채널을 확보(2002년 (500개) 2003년(1,500개) 2004년(3,000개) 2005년(5,000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별로 해외 마켓채널 사업자를 내에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동경(10월), 북경(12월) 등 iPark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민족 IT 전문가 대회(KIN) 개최 등을 통하여 글로벌 한민족 IT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Cyber 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IT 수출지원 Hub 포털사이트(www.itbizkorea.com)를 구축, 국내 IT 관련협회, KOTRA, 해외 공관 등과 연결하여 관련국가의 시장 및 해외수주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한편 e-Trade 무역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화상기반의 「Korea Cyber IT 수출 전시회」, 「사이버 상담실」 및 「IT 상담 전문가 Pool」제도 등을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상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세계 IT 산업의 기술 및 표준 주도

◇ 국제 공동연구(R&D)를 통한 아시아 IT 연구 거점(Hub)화 추진

4세대 이동통신, 광인터넷 등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차세대 핵심 IT기술 및 지적재산권(IPR)을 확보하고,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TEIN), APII Testbed 등 국가간 연구망 연동을 통한 차세대 인터넷, IPv6 등 선진국과의 공동기술개발 및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통신, 반도체 등 유망 IT 산업의 생산기지화 및 국제 R&D 연구센터의 국내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세계 IT 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협력 강화

4G, xDSL, 무선인터넷플랫폼, IPv6 분야 등 차세대 기술을 민·관 협력활동을 통해 국제표준으로 반영하는 한편 한·중·일 3국간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태 및 국제 표준화 공동 대응기반을 조성 할 방침이다.

□ 세계 정보격차 해소사업 참여를 통한 IT 해외진출 기반조성

◇ World Bank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IT 인력교육을 위한 「International Digital Bridge Center(IDBC)」를 국내에 설립(10월)하고 ASEAN 정보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제정보격차해소 심포지엄을 개최(11월, 서울)한다.

◇ 인도, 베트남 등 해외진출 주요전략국가의 IT 정책결정자, 핵심기술자 및 언론인 초청을 확대하고, 정보화 연수를 통해 해외 IT 휴먼 네트워크(2002년(25개국 300명) 2003년(40개국 500명) 2006년(60개국 1000명))를 구축한다.

◇ 주요 신흥 IT국가에 인터넷 청년봉사단의 파견을 확대(2002년(25개국 205명) 2003년(40개국 400명) 2006년(60개국 700명))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현행 10일 30일)하여 인터넷 교육과 함께 민간 IT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 동남아, 중남미 등 정보화 후발국에 「IT 협력 센터」를 구축(2002년 1개소, 2003년 5개소)하여 공동연구 및 합작 등을 통한 우리나라 정보화 모델의 전수와 IT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세계 IT 협력 공동체 구축

아시아 IT 장관회의(2003. 6월, 뉴델리) 및 한·중·일 IT 장관회의 및 국장급 회의(9월)를 정례화하고, 제1차 ASEAN+3 정보통신민간협의회 총회 개최(10월, 서울)와 동남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별로 주한 상무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11월)할 계획이다.

□ WTO 협상 적극 대응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

WTO 통신서비스 협상시 선진국과 개도국 양측의 입장은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세계 IT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ITU, 세계 정보사회 정상회의(WSIS), APEC 등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여 세계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현황과 우리나라 정보화 및 IT산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한다.

□ 민·관 합동의 범국가적 수출추진체제 구축

IT 업계, 학계 및 정부 공동으로 「민·관 합동 IT 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민·관 공동 위원장)」를 구성 운영하여 반기별로 IT 수출실적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정통부내 이동통신해외진출지원팀을 IT 수출지원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IT 해외수출 정책을 종합 기획·조정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IT 수출지원과로 개편할 예정이다.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미국, 중국 등 4개국에 파견되어 있는 정보통신주재관을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 등 신흥 IT 국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이동통신수출진흥센터를 「한국IT수출진흥원(ICA)」으로 확대 개편하여 해외 IT 시장 조사·분석, 지역별 수출전략 수립 및 현지 지원활동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IT 업계, 협회, 연구기관, 벤처캐피탈과 컨설팅 회사 등으로 「글로벌 IT 마케팅 포럼」을 구성(9월)하여 민간차원의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협의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